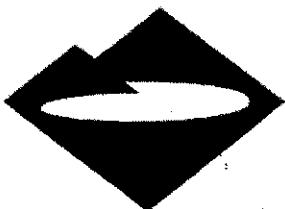


2006. 3. 16. - 3. 17.  
제121회 임시회

# 시정질문 답변서



제 천 시

# 시정질문 및 답변순서

(제12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일 시	의원명	질 문 내 용	답 변 자	비 고
계	4명	10건	9명	
3. 16 (목) 10:00	박종유	월악산 국립공원내 취락지구의 공원해제에 대하여?	관광건설국장	①
		제천시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에 대하여?	건축과장	②
		시민행정서비스 현장에 대한 평가질과는?	자치행정국장	③
이동수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에 대하여? <u>(서면답변으로 가름)</u>	산림녹지과장	④
		중앙고속도로 제천휴게소 설치사업에 대하여?	건설과장	⑤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하여?	생활민원과장	⑥
김성진		제천바이오밸리 기업유치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테크노밸 기업유치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투자통상실장	⑦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건축과장	⑧
3. 17 (금) 10:00	김남원	우리시의 축산경쟁력 제고와 가축방역 대책에 대하여?	농업축산과장	⑨

# 답 변 서

질문의원명	朴鍾裕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답변자	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제 목	월악산 국립공원내 취락지구의 공원해제에 대하여

## 질문요지

1. 국립공원내 취락지구 현황?(지역명, 가구수, 인구, 면적 등)
2. 국립공원내 최근 2년간 주민의 민원현황은?
3. 최근 5년간 국립공원내 취락지구의 공원해제 실적은?
4. 국립공원내 공원해제 가능(예상)지역 현황은?
5. 향후 취락지구의 공원해제 계획은?

## 답변내용

평소 관광건설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하여주시는 유영화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박종유의원께서 질의하신 월악산 국립공원내 취락지구의 공원구역해제 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악산 국립공원내 취락지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월악산 국립공원은 1984년 12월 31일 건설부고시 제565호로 우리나라 국립공원중 17번째로 충북과 경북 일부가 포함된 287.977km<sup>2</sup>가 지정되었으며,
- 우리시 편입 면적은 수산면, 덕산면과 한수면 일부 지역에 120.18km<sup>2</sup>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밀집마을지구(종전: 밀집취락지구) 1개소 0.515km<sup>2</sup>, 자연마을지구(종전: 자연취락지구) 9개소 0.451km<sup>2</sup>, 집단시설지구 2개소 0.175km<sup>2</sup>, 기타자

연지구 119.039㎢가 지정되어 관리중이며 덕산면에 86가구 205명, 한수면에 207가구 545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마을지구 주민거주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 밀집 마을지구내역

위 치	면 적 (㎢)	가구수 (호)	인구수 (명)	비 고
한수면 송계리 일원	0.515	169	450	면소재지

- 자연 마을지구내역

위 치	면 적 (㎢)	가구수 (호)	인구수 (명)	비 고
계	0.451	124	300	
소 계	0.162	38	95	한수면
송계리(동창지구)	0.082	5	20	
송계리(덕주골지구)	0.015	20	36	
송계리(사장지구)	0.018	7	21	
송계리(골미지구)	0.047	6	18	
소 계	0.289	86	205	덕산면
월악리(월악지구)	0.150	37	90	
월악리(사시리지구)	0.047	17	49	
월악리(양지말지구)	0.049	20	46	
월악리(음지말지구)	0.011	5	5	
월악리(용하수지구)	0.032	7	15	

**두 번째로, 국립공원내 최근 2년간 주민의 민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월악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문의한바, 진정서 등 공식적인 민원은 없었으며 다만, 사소한 건축행위라도 사전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어 경계지역 조정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는 등 지역주민들이 각종 인·허가 처리시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 번째로, 국립공원내 취락지구의 공원해제 실적은 (최근 5년간) 아래와 같습니다.**

- 전국적인 공원구역내 민원해소 차원에서 1997년도에 당시 내무부가 5년여에 걸쳐 국립공원구역을 재조정하여 2001년 12월 21일 제47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확정, 2003년 8월 30일 환경부고시 제 150호로, 덕산면 수산리 쪽갓지구 89,000m<sup>2</sup>, 덕산면 수산리 시루미지구 33,000m<sup>2</sup>, 덕산면 월악리 넓은내지구 10,000m<sup>2</sup>등 모두 3개지구 132,000m<sup>2</sup>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되어 각종 개발 행위가 다소 자유로운 관리지역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당시 공원해제 방침은 국립공원 경계선에 위치한 마을로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지에 한하여 해제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네 번째, 국립공원내 공원해제 가능(예상) 지역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국립공원을 지정하거나 폐지 또는 구역변경에 관한 일체

의 권한은 자연공원법 제4조의 2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는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나, 여론을 수렴하여 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취락지구의 공원 해제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공원구역내에 편입되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은 마을지구에 대하여는, 여론을 수렴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환경부에 주민의 뜻을 전달하고, 공원구역지정이 폐지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 자연공원법상 매10년 주기로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바 예측하건데 2013년도 있을 동계획에 많은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종유의원님이 질의하신 월악산국립공원내 취락지구의 공원해제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서

질문의원명	박 종 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답변자	건축과장 박 태 규
제 목	제천시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에 대하여?

## 질문요지

- 최근 2년간 제천시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 내역은?

## 답변내용

박종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2년간 제천시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전체적인 건축현황은 2004년 총1364건 276,142m' 2005년 912건 215,584m'의 건축물이 허가 또는 신고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현황을 보면

### ○ 건축허가는

- 2004년 신축 136건, 증축 35건, 공용건축물 14건등 총185건에 총연면적 154,343m'이며,
- 2005년은 신축 152건, 증축 46건, 공용건축물 10건등 총208건에 총연면적 138,112m'입니다.
- 건축신고는 2004년 210건 15,209m', 2005년 164건 15,372m'을 처리하였으며,
-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은 2004년 969건 106,590m', 2005년 540건 62,100m'을 처리 하였습니다.

### ○ 건축허가건에 대한 준공처리(사용승인) 현황은

- 2004년 신축준공 133건, 증축준공 42건등 총175건이며,
- 2005년 신축준공 130건, 증축준공 32건등 총162건입니다.

### ○ 참고로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건축된 공동주택은

- 2004년 3건 1,543세대 214,958m<sup>2</sup>가 허가되고, 1건 40세대 4,353m<sup>2</sup>가 준공되었으며,
- 2005년은 7건 3,881세대 372,630m<sup>2</sup>가 허가되고, 3건 1158세대 111,846m<sup>2</sup>가 준공 되었습니다.

이상 박종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허가 및 준공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답변서

질문의원명	박종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답변자	자치행정국장 김재식
제목	행정서비스 현장에 대한 평가결과?

질문요지

- 우리시의 행정서비스 현장 제정 배경, 추진실적, 평가결과

답변내용

-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종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행정서비스현장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행정서비스현장 제정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 행정서비스 제공방식을 행정중심에서 주민중심으로 전환, 고객감동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행정서비스 현장제』란 기존의 규정적·권위적·피동적인 행정서비스의 전달구조와 형태를 주민편익·주민입장에서 ①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②제공방법 및 절차 ③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개선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주민에게 약속하는 자발적 제도입니다.
  - ▶ 연도별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1998년 대통령 훈령 제70호인 행정서비스현장 제정지침 발령을 시작으로 현장 제정이 시작되었으며, 우리시는 1999년도에 환경행정서비스현장 제정을

시작으로 2000년도에는 8개 부서의 현장을 제정·운영하였습니다.

- ▶ 이후 현장제 운영 내실화 및 확산에 노력하여 왔으며, 2005년도에 제천시의회 현장 및 청풍관광개발사업소 현장을 제정하여 시 본청 통합 현장 등 총 26개의 현장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2005년도 행정서비스현장제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 2005년 행정서비스현장 개정과 관련하여 2004년도 고객만족도조사 결과 반영, 1차 고객 의견조사시 20건의 의견 반영, 심의위원회 의견 반영 등 4회 걸쳐 고객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한단계 Up-grade된 행정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 행정서비스현장제에 대한 공무원의 실천 계기를 마련코자 2005년도 행정서비스현장 공표식 및 실천결의를 실시하였으며,
- ▶ 공표식과 연계하여 행정서비스현장제의 전문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박사를 초청하여 '행정서비스 혁신마인드 제고'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실천의식 제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 ▶ 또한, 현장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제 추진 주무담당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현장제 업무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하여 현장제 발전방안에 대한 제안 발표 및 토론을 실시함으로써 현장제 업무 관련자 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에도 노력하였습니다.

- ▶ 특히, 공무원의 실천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현장제 고객만족도 조사와는 별도로 공무원의 전화응대 실태를 점검하는 등 내부 이행실태를 점검 평가하였습니다.
- ▶ 고객불편보상과 관련하여서는 직원교육과 내부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수시 접수를 통하여 2005년도에 총 75건의 고객불편사항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현장제 실천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우리시 행정서비스현장에 대한 충청북도의 평가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 2005년도에 충청북도에서는 2005. 8. 16. ~ 8. 27. 기간중 각 시·군 민원인 100명을 대상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전화 및 면담조사의 방법으로 충북 도내 각 시·군의 고객만족도를 조사·공표하였습니다.
- ▶ 조사결과 우리시의 행정서비스현장 인지도는 34%로 도내 평균 인지도인 11%를 훨씬 상회하여 도내 12개 기관중 인지도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 ▶ 고객응대서비스 만족도 부문에서는 10점 만점 기준에서 7.98 점으로 도내 평균 8.39점에 못미치는 10위를 하였고,
- ▶ 서비스 이행기준 만족도 부문에서도 도내 평균은 8.05점에 못미치는 7.55점을 맞아 도내 9위를 하였습니다.
- ▶ 그러나, 고객만족도조사와 내부 문서평가를 종합한 결과 우리시가 충청북도내 3위(장려상)를 차지하여 상사업비 10,000 천원을 받았으며, 중앙평가 대상기관에 선정되어 고객만족도 조사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3월말경 행정자치부에서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금년도에도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현장 이행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현장 이행기준에 대한 공무원의 실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을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행정서비스현장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서

질문의원명	李 東 壽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답변자	산림녹지과장 오성창
제 목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에 대하여

## 질문요지

1. 2006년도 유해조수에 대한 사전대책은?
2. 지구별 피해예상액 및 상습지의 농경지 면적은?
3. 최근 3년간 유해조수 피해예방을 위한 연도별, 사업별 집행내역은?
4. 농작물 피해보상 지금에 대한 조례체정 추진상황은?

## 답변내용

평소 산림녹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영화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동수의원께서 질의하신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유해조수에 대한 사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2006년도 유해조수에 대한 사전대책사업으로 2004년도와 2005년도에 구입하여 읍면에 배부한 유해조수퇴치용 폭음기 108대를 농가에 대여 사용토록하고 금년도에도 15,000 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폭음기 약30대 구입 등 농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피해예방시설을 보급하여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제천시 자연생태계보전협회회원을 대상으로 6월 중에 유해조수자율구제단 약25명 내외를 구성하여 7월1일부터 10월20일까지 채소류, 옥수수, 고구마, 과수원등에 피해를 끼치는 고라니, 까치, 엣퇘지 등을 포획할 수 있도록 실단. 유류대등 약14,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야간에도 포획 할 수 있도록 제천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구별 피해예상액 및 상습지의 농경지 면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우리지역은 총면적의 73%인 64,741ha가 임야로서 야생동물이 서식하기가 매우 좋은 산간오지마을이 많은 지역으로 2005년도 유해조수구제접수현황을 파악한 결과 채소 및 논, 밭작물 250ha, 과수원 441ha합계 691ha로서 피해예상액은 약917,467천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해조수 피해예방을 위한 연도별 집행내역은(최근 3년간)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연도별	계	민간단체 지원	울무링 제작	폭음기 구입	방수망 설치	비고
계	121,554	28,306	2,000 (285개)	16,200 (108대)	75,048 (55km)	방수망 설치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지원 사업임
2005	37,083	11,953	1,300 (185개)	8,700 (58대)	15,130 (30km)	
2004	75,771	8,353	0	7,500 (50대)	59,918 (25km)	
2003	8,700	8,000	700 (100개)	0	0	

끝으로 농작물피해보상지급에 대한 조례제정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2005년도 2월부터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보상(법제 12조)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농작물피해보상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이 금년 3월 현재 마련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안」을 4월중에 마련하여 금년 상반기 이내에 조례를 제정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면서 추후 환경부고시에 따라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수의원님이 질의하신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서

질문의원명	이동수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답변자	건설과장
제 목	중앙고속도로 제천휴게소 설치사업에 대하여

질문요지

- 제천휴게소 설치사업 추진현황은?  
( 대상지, 사업시기, 소요예산, 시행청 및 시행업자,  
진척상황,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 등 )
- 제천휴게소 준공 시 우리시에 미치는 효과는?

답변내용

-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 평소건설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시는 유영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고속도로 제천휴게소 설치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천휴게소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1년 중앙고속도로가 완전 개통되면서, 당초 고속도로 제천 휴게소 계획은 치악휴게소와 단양휴게소 거리(치악~제천 23.0km, 제천~단양 17.0km)가 짧다는 이유로 제외되었으나, '95. 11. 21.부터 시와 의회 그리고 봉양읍 이장협의회에서 수 차례 걸친 건의와 특히 '95. 08. 중앙고속도로 2차선을 개통하면서 치악휴게소의 오폐수 처리문제를 봉양읍 주민의 다수가 민원 제기하므로 도로공사의 민원해결대책으로 제천휴게소 설치를 확약받아 봉양읍 삼거리 155-6번지 일대 5만평 규모 휴게소 부지로 2개소를 확보하고 진입도로와 보도블록만이 설치된 현재의 상태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 그 후 휴게소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03. 09. 17. 한국도로공사에 휴게소 건립을 촉구하였으나, 휴게소 설치기준 교통량인 일평균 12,700대에 현저히 미달되는 7,500여 대로 경영분석결과 지연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 재촉구하는 차원에서 '04. 02. 25. 이동수의원님과 봉양읍 이장협의회에서 도로공사를 직접 항의 방문하여 '05년 설계, '06년 준공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리고 '04. 03. 22. 조기시행의 확실한 추진일정을 제촉구한 바 '05년 상반기 건축설계, '06년 하반기 준공하여 영업개시 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휴게소 시행청은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직접 시행하게 되며 감독은 강원지역본부에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04. 10. 13. 휴게소 내 농특산물 판매장과 청천관광홍보관을 설치토록 요청한바 내 고장 유품상품 판매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고 '05. 02. 18. 도로공사를 방문하여 휴게소 건물 내에 설치토록 요청한바 별도로 설치하여야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도로공사에서 휴게소 착공을 위해서 '06. 02. 14. 관광휴게시설(화물차 휴게소 겸용) 건축물 허가 신청이 우리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춘천방면 615평, 대구방면 645평으로 세부 설계내용입니다. 사업비는 11,800백만원을 확보한 상태이므로 '06. 5월 이전에는 착수되어 조기 준공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으로 제천휴게소 준공 시 우리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휴게소가 설치되면, 우선 제천시의 홍보효과가 제일 크다고 생각됩니다.

휴게소에 제천관광안내센터를 설치하여 여행객들에게 관광정보를 제공하여 지역의 관광객으로 유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휴게소 내에 농특산물판매장이 설치되어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고 직접 판매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우리 지역 주민의 직접 고용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 재산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등으로서 시설규모 및 영업실적에 따라 세밀히 산정하여야 하므로 정확한 산정은 어려우나, 참고로 단양휴게소(4억6천만원정도)와 치악휴게소(3억5천만원)의 징수사례로 볼 때 우리시에 5억원 정도의 지방세 세수증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이상 질문하신 중앙고속도로 제천휴게소 설치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답변서

질문의원명	이동수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답변자	생활민원과장 윤종철
제목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하여

## 질문요지

- 추진경위, 사업현황 및 집행액, 활용범위와 실태
- 대주민 우편물 및 고지서 발송시 새주소 병기에 대한 이용률
- 관내 우체국과의 협의내용 및 대주민홍보 내역(최근2년간)

## 답변내용

- 생활민원과장 윤종철입니다.
  - 평소에 생활민원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동수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토지지번의 무질서한 주소체계에 선진국과 같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국민생활의 불편해소와 국가 및 도시 경쟁력제고를 위해 실시되었으며, 사업기간은 2000년 10월 ~ 2003. 12. 31 까지( 3년 3개월 )걸렸으며 사업기간 내에 집행된 총사업비는 1,431백 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도로명 주소는 공공분야 ( 5대분야 )인 국가교통, 우편, 범죄정보 및 재난 및 통계시스템 구축에 활용과 민간분야에 택배, 부동산 중개업소, 배달업소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2. 우편물 및 고지서 발송시 도로명주소의 활용은 현재 관공서 및 일부 민간기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 법제정 후에 공법상 주소전환 시행시기에 맞추어 대국민 홍보 및 활용분야 확대를 강화할 계획이며 새주소의 병기 이용률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관내 우체국에는 각종우편물 주소나, 주소가 들어가 있는 고무인제작 등 주소가 사용되는 곳에는 반드시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병기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최근2년간의 홍보내역으로는
- 도로명 홍보 CM 송출 : 5회
  - TV · 유선방송 홍보 : 2회
  - 지방 일간지 보도 : 10회
  - 각종 제천시 홍보책자 게제 : 7회
  - 도로명부여 사업 홍보물 제작 및 배부 : 2회
  -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인식도 설문조사 실시 : 1회
  - 미래 도로명주소 사용충에 대한 홍보 실시 : 2회
  -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접지형 및 책자형) 제작, 배부 : 2회
  - 제천시 홈페이지에 새주소 안내서비스 실시
  - 각종고지서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병기활용
  - 퀴즈풀이를 통한 홍보 : 2회
  - 디지털 전광판을 이용한 도로명주소 홍보 : 1회

이며 점차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새주소 제도의 조기 정착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답변서

질문의원명	김성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답변자	투자통상실장 윤종섭

질문요지

- 제천바이오밸리 기업유치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
- 기업유치 향후 계획은 ?
  - 입주체약업체, 가동업체, 건축중인 업체실태 및 관리계획은 ?
- 해크노밸 기업유치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
- 기업유치 향후 계획은 ?
  - 입주업체 관리 및 활성화 계획은 ?
  - 미가동업체 관리 및 향후 대책은 ?

답변내용

정말 고맙습니다. 투자통상실장 윤종섭입니다.

항상 특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우리시 발전의 중심축이 될 바이오밸리 기업유치 업무 등 지역투자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성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2가지 질문내용중 먼저 “제천바이오밸리 기업유치 및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먼저 단지조성과 현재까지의 분양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단지조성은 최초 1991. 4. 20일 도시기본계획, 1992. 12. 26일 왕암지방공단 조성사업 기본계획, 2001. 5. 2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2004. 12. 31일 준공되었고 작년 2. 2일 충청북도로부터 준공인가 되었습니다.

○ 현재까지 분양실적을 보면 총부지 362천평중 주거·상업·지원용지 100%분양, 전체 공장용지 221천평중 52개업체에게 분양 및 입주계약을 체결 96.8%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내 기업유치 100% 달성을 목표로 홍보강화, 맞춤식 기획출장, 현장방문 등 기업유치 마무리 전략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지난 2년 6개월여 기간에 걸쳐 새로운 기업마인드로 새로운 분야에 접근해온 기업유치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분양용지에 대해 ① 다양한 기업유치 정보 인맥을 풀가동하고 ② 기존의 기업유치촉진조례 등 제도적 사항을 시기에 맞춰 적절하게 보완하는 한편 ③ 중앙정부의 다양한 기업지원자금을 확보하여 기업지원은 물론 열악한 시 재정여건을 충당하는 전방위 기업유치 전략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와는 별도로 장기적 기업유치대책 차원에서 제1바이오밸리의 성공적인 분양 연장선에서 제2바이오밸리 조성전에 대규모 유망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맞춤식 산업단지로 특화하는데 기본원칙을 두고 기업유치 사전작업에 금년도 하반기부터 옮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 금년부터는 입주기업체가 공장을 건축하고 실제 가동될 수 있도록 공장가동율 제고에 행·재정적인 지원으로 실질적인 지역의 고용창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가동업체와 금년도 준공완료단계에 있거나 공장 설계중에 있는 업체가 정상 추진될 경우 금년말 가동율이 74% 이상으로 종업원 2,273명 정도(제천지역내 60%정도 취업)가 예상됩니다.

## 2. 입주계약업체, 가동업체, 건축중인 업체 실태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체 공장용지 221천평 대비 214천평 52개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 96.8%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으며, 입주계약 체결한 분양업체의 추진상황을 보면

총 52개업체중 현재 가동중인 공장등록업체는 9개사로 (재)전통의약산업센터, (주)일진글로벌, 진홍산업(주), 우리팜제약(주), 홍우에스앤피(주), (주)C&S푸드시스템, (주)한수식품, (주)엠판넬 1·2공장이 있으며, 금년 준공 또는 착공예정인 업체는 (주)유유를 비롯하여 21개사입니다.

○ 특히, 바이오밸리내 3개블럭 36필지 39천평 국민임대단지에 BT, IT 관련업종의 소자본,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함은 물론 2,065 평의 부지에 연면적 403평, 지하1층·지상2층, 철근콘크리트조 폴리메탈마감재 사용 등 1,500백만원을 투입, 시에서 직접 건립하여 부지와 건물까지 저렴하게 임대 공급하고 한방관련 벤처형 소규모 기업을 입주시키는 등 특화된 시책사업도 추진 금년 하반기에 오픈하겠습니다.

#### < 현재까지 기업유치 추진 참고자료 >

구 분	업체수	면 적	종업원수	비 고
계	52 개	214,463 평	3,643 명	
바 이 오	3	2,648	63	
음 식 료 품	12	22,572	576	
의 약 품	17	94,045	1,214	
자동차 부품	3	48,409	733	
전 기 전 자	4	13,140	550	
기 타	13	33,649	507	

※ 현재 입주계약체결 52개업체와 100% 입주시 종업원 3,643명

○ 향후 바이오밸리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단지관리계획은 단지조성계획과 함께 수립되는 것으로써 향후 바이오밸리 성공 전략중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한국토지공사 충북지역본부로부터 조성공사 준공인가(2005. 2. 2) 이후 기반시설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2005. 9. 28)를 마무리했고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우리시가 무상 귀속받은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현재 투자통상실에서 총괄관리하고 공공시설물인 도로, 상·하수도시설, 조경시설, 가로·공원등, 교통신호기, 소화전 등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와 업무역할 분담하여 책임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의 유지관리이외의 관리사무소 설립으로 산업단지관리소 운영계획은 (사)입주기업협의회 설립인가, 정관, 사업계획서 등 구성지원과 산하에 관리사무소를 두고 단지내 공공 시설물관리 유지관리 기능과 기업입주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관리전담토록 대책하겠으며 이에 따른 필요 재원은 입주기업협의회 공동분담 및 일부는 시에서 부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의하신 “테크노빌 기업유치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테크노빌 명칭은 기존의 농공단지 명칭을 단지이미지 쇄신 및 입주업체에서 명칭변경 요청에 따라 2003년 10월부터 테크노빌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1. 우선, 테크노빌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단지명	소재지	면적(m <sup>2</sup> )	지정일	입주업체	휴업	가동률(%)	종업원
계		619,037		70	3	95.7	1,342
강저단지	강제동	141,776	1987. 9.21.	19	-	100	277
고암단지	고암동	168,073	1989. 12.12.	23	-	100	404
금성단지	금성면	86,023	1988. 11.19.	14	2	85.7	159
봉양단지	봉양읍	133,098	1990. 1.29.	4	-	100	258
송학단지	송학면	90,067	1989. 11.21.	10	1	90.0	244

○ 관내에는 5개 테크노빌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최초 강저 단지가 1988년 준공되었고 마지막으로 봉양단지가 1991년 조성되어 현재 준공된지 15년~18년이 경과 되었습니다.

조성면적은 619,037m<sup>2</sup>(187,258평), 사업비(137억 원), 현재입주업체 70개 업체가(임대공장 포함) 입주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분양 입주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5개 단지 54개 업체(필지별)가 입주계약 하여 최종 2000년 송학단지 케이퓨터(주) 업체에게 소유권 이전되어 지금은 100%분양 및 소유권이전이 완료된 상태로 공장 가동을 또한 현재 95.7%로 최근 들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2. 테크노빌 기업유치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 테크노빌 기업유치에 대하여는 미분양 용지가 없는 관계로 휴·폐업된 공장에 대하여 대체 입주업체를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장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개인에게 있어 유망 중소기업이 입주를 원해도 매매가격이 맞지 않을 경우 입주에 있어 시의 역할론이 한계가 있다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또한 지금의 현실입니다.

○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도 장기 휴업중인 송학단지 도성화학 공업사(1997년 휴업) 양도·양수 체결(부지:17,246m<sup>2</sup>(5,217평), 건물4,248.44m<sup>2</sup>(1,285.15평), 매매가:12억) 및 봉양단지 에스엠전자(주), 정경판넬공업(주) 공장 매매계약(면적:14,808m<sup>2</sup>(4,479평) 매매가:10억) 등 미가동 공장에 대한 기업유치를 위하여 시에서 중개 역할 및 원 스텝 민원행정 처리로 기업이 공장운영에 있어 최소한의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3. 입주업체 관리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 우리시 관내 5개단지 70개 기업체에 종사하는 1,342명의 근로자 및 테크노빌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입주기업협의회와의 정기적인(월, 분기) 만남을 시가 직접 자리를 함께하여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대책하면서 노후된 기반시설을 보수함으로써 테크노빌 이미지 개선 및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자금 지원과 경영안정에 기여하여 전국에서 제일가는 테크노빌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① 단지별 입주기업협의회를 통한 애로사항 파악 및 해결

- 테크노빌 입주기업 맞춤형 공공근로 인력지원 : 6업체 10명
- 단지별 제초작업 및 가로수 정비 인부임 확보 : 4백만원
- 금성단지 입구 입주업체 입간판 제작 설치 : 8백만원

② 노후된 기반시설 개·보수로 입주업체의 편의제공

- 충북도내 중 테크노빌 활성화 사업비 최대운용 : 405백만원  
'06년(충주: 170백만원, 보은·괴산: 70백만원, 진천: 69백만원)
- 2005년 노후 기반시설 보수공사 예산지출 : 180백만원
- 농공단지특별회계 기금관리 : 4,100백만원 정도(조례로 관리 운영)

③ 테크노빌 입주업체의 실질적인 자금지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차액 지원 (이자보전 3%)
  - 2005년도 이자보전 지급액 : 3개업체 10백만원
  - 2006년도 이자보전 지급액 : 1개업체 3백만원
- 산학연관 컨소시엄 사업의 업체부담금 일부지원('05년)
  - 중소기업 현장기술지원 사업비 : 1개업체 2.3백만원
- 정부의 지역특화 기술혁신 선도기업 지원사업 추진('05년)
  - 한약재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개발비 지원 : 1개업체 85백만원
- 테크노빌 우수 중소기업 홍보싸이트 구축사업('05년)
  - 세명대 친환경디자인센터 제작 : 30개업체 30백만원

○ 테크노빌 유망 중소기업 및 우수제품에 대한 홍보의 일환으로 푸른제천 소식지에 매월 1개 업체씩 게재하고 있으며, 테크노빌 입주업체의 생산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등 지역향토생산품이 우리시 및 지역에서 널리 애용되도록 지역상품팔아주기 운동을 시의 특수시책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제천시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 근로자예우에 관한 조례(2006.2.10)까지 제정하여 지역이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써 기업인 스스로가 자긍심을 높여 기업에 보다 더 헌신기여 하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 4. 미가동업체 관리 및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 〈 미가동 업체 현황 〉

- 송학단지 : 케이큐티(주) ⇒ 공장 준비중 (2005년 휴업)
- 금성단지 : 와이즈(주), 한국합섬(주) ⇒ 휴업 (2006년)
- 송학단지의 케이큐티(주) 업체는 핸드폰의 부품인 수정진동자 및 부품을 생산해오던 업체로 인건비 상승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해 2004년부터 중국으로 기계시설을 이전한 상태로 현재 새로운 업종에 대한 공장준비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 금성단지의 와이즈(주)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이며, 한국합섬(주)는 원사(실)를 제조하는 업체로 2006년 1월까지 정상가동 하였고 현재는 자금부족 및 원자재가격(원사) 상승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 현재 미가동중인 업체에 대하여는 휴·폐업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외부로부터 우리지역 테크노빌에 입주의사를 상담해 오는 업체를 대상으로 대체 기업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장기간 미가동 업체에 대하여는 공장임대를 통한 공장운영이 되도록 공장주와 함께 대책을 계속 강구하겠으며, 테크노빌 이름에 걸맞는 운영활성화 시책 또한 계속 발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제까지 김성진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지역의 발전 원동력은 테크노빌과 바이오밸리를 중심축으로 한 견실한 기업이 우리지역에 계획대로 입주하고 정상 가동된다면 분명 지역경제를 살찌우는 동인(動因) 역할을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기업체 특성상 짚은총이 주가 되는 청장년층 집중화로 생산적 인력에서 오는 인구증가 등 지역현안 과제 해결과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금년 상반기내 기업유치 100% 목표달성과 현재까지 기본원칙으로 지켜온 「선, 승인 후, 보완」 정신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 변 서

질문의원명	김 성 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답변자	건축과장 박태규
제 목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 질문요지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 사업내용 및 추진일정에 대하여 세부적인 계획은?

### 답변내용

먼저 사업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억8천4백만원으로 조성구간은 중앙로1가 3길, 4길이며 절대공기는 150일로 바닥돌포장, 음악분수 및 벽천분수, 환경시설물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5년 9월 22일에 착공하였으며, 동절기 공사중지후 2006년 3월 6일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 바닥 콘크리트포장 및 분수대 시설에 대하여 구조물 설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바닥돌포장은 3길, 4길 양구간으로 나누어 작업을 진행하여 4월말 완료할 계획이며, 통파도로 신호등조형물은 3월중 신호등 철거 및 기초구조물 설치후 한달정도의 양생기간을 거쳐 4월말경 설치할 계획입니다.

음악분수 및 벽천분수는 5월초 설치완료후 시운전 및 점검계획  
중으로 준공예정일은 6월17일이나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장기  
공사로 이어져 문화의 거리내 점포주 및 시민통행 불편을 해소  
하고자 최대한 공사기간을 앞당겨 5월중으로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